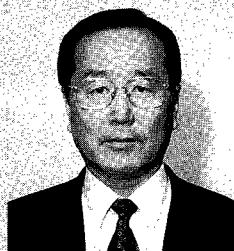


닭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고려할 사항들



정 선 부

· 한국축산학회장
· 전 한국가금학회장

닭의 생산성은 계종, 사육환경, 사료영양, 환경 그리고 위생관리 등의 복합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종합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양계농가들은 이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한가지 요소만 가지고 닭의 생산성을 높이려 하기 때문에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닭의 생산성을 진정으로 높이려는 양계농가는 평소 적용하고 있는 사양관리기술을 되돌아

보고 이들 기술사항을 재점검함과 동시에 최근에 개발된 관련기술을 재조립하여 최적의 기술만을 선택하여 양계농장 경영에 투입해야만 냉혹한 국제경쟁시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 양계인들은 과거 이용하던 단편적인 기술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좀더 새롭고, 좀더 실용적인 기술들을 종합적으로 투입해야만 한다. 여기서는 우리가 평소에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1. 고능력 계종을 적절히 선택 하였는가?

아무리 사양관리를 잘하여도 구입한 계군의 유전적 능력이 좋지 못하면 양계농가가 노력한 만큼 생산성을 발휘하지 못하여 수익을 올릴 수 없다.

현명한 양계인이라면 한 계종만을 사육하는 것을 고집하지 말고, 국내외 닭 개량관련 최신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종계회사별 종계의 능력개량 현황을 파악하고, 그 계종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의 사육 결과를 알아보고, 종계회사에서 발표한 능력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발휘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판단되는 계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계종도 한가지만 고집하지 말고 최소 두 계종을 사육하면서 계종별로 수익성을 비교하면서 사육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계종이라도 그 종계를 사육한 부화장에 따라 닭의 능력에 차이가 있으니 오랫동안 좋은 병아리를 부화해온 신용있는 부화장에서 생산된 병아리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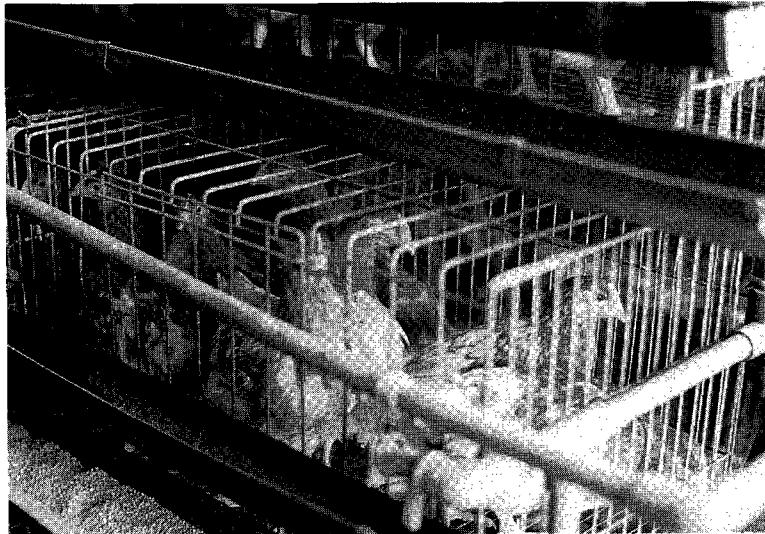
2. 육성기 최적의 발육곡선으로 길러졌는가?

산란계의 경우 육성기간중 사양관리가 산란기간중의 생산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육성기에 최적의 발육 곡선에 맞추어 길러진 닭만이 산란기간중에 생산성을 최대로 높일 수 있다. 특히 요즈음에는 산란계를 자기 농장에서 육성하지 않고 산란계 전문 육성 농장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육성농장의 육성일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육성기간중의 사양관리 상태, 육성기간중의 주령별 체중, 백신 접종상태, 점등 프로그램 그리고 체형 등을 관찰한 후 육성계의 선택을 결정하여야 한다.

3. 균형된 사료를 급여하고 있는가?

닭은 다른 가축에 비하여 사료이용 효율이 높기 때문에 성장과 계란생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필요하다. 때문에 양계농가는 닭에게 균형된 완전사료를 급여하여 닭이 가지고 있는 유전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영양관리를 하여 닭의 생산성을 최대로 올릴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특히 닭은 환경온도에 따라 영양소의 요구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계절별로 균형된 사료를 급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여름철에는 고단백 사료를 주어야하고 겨울철에는 열량함량이 높은 고열량 사료를 주어야 닭이 가지고 있는 유전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양계농가는 계절사료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4. 쾌적한 환경조건을 유지하고 있는가?

아무리 유전적으로 우수한 계종을 선택하여 균형된 사료를 급여하였다 하더라도 사육환경이 적절치 못하면 닭은 생산성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은 양계인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평소 소홀히 하는 사항이다.

환경조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환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겨울철 보온에 신경을 쓰다보면 환기가 불량하게되어 보온으로 인한 이익보다 환기 불량으로 인한 손해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 해야한다. 계사내의 환기는 온도와 역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환기와 온도를 조화있게 조절하는데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어떤 양계 농가는 양계업의 성패는 계사내의 환기를 적절히 조절하는데 달렸다고 말하기도 하는 것을 보면 환기 조절이 양계수의 성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5. 위생적인 깨끗한 사육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는가?

우리는 양계산업에서 소모성질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해를 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가장 현명한 양계 농가는 닭의 건강을 질병의 사전에 예방에 의해서 보호하고 있다.

닭은 경제동물이기 때문에 이미 질병에 감염되었을 때는 이미 그 닭은 경제성이 없어 도태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양계농가는 닭이 각종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질병의 예방이 곧 닭의 생산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각종 질병의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면서 외부인사의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각종 야생동물의 계사 침입에 도 잘 대비하여야 한다.

6. 청결한 물을 급여하고 있는가?

우리는 혼이 닭에게 물을 급여하는 것은 단

순히 목마름을 해결해주기 위한 것으로 알고 아무 물이나 급여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수가 많다.

그러나 물은 6대 영양소로 분류할 정도로 닭의 생산성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

청결한 물을 급여한 닭과 불결한물을 급여한 닭간에 얼마나 많이 생산성에 차이가 있는가는 실제 체험하지 않고서는 실감할 수가 없을 것이다.

물과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여름에는 지하수와 같은 친물을 급여하고 겨울에는 따듯한 물을 주어야 닭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유의 해야한다.

또한 불결한물을 급여할 경우 물에 함유된 각종 병원균이 닭으로 유입되어 닭이 여러 가지 질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양계

개량 토종닭 분양

※ 분양 품종

- ★ 한협 3호 분양
- ★ 청둥오리 분양

※ 병아리 분양 및 상담

- 매주 [화요일] 분양합니다.
[금요일]



동남농원

주 소 : 경기도 안성군 일죽면 송천리 478번지
전 화 : (033)672-0088, 674-0606, Fax:(033)674-0050
핸드폰 : 011-307-7208, 호출기 : 012-1363-7208
농 협 : 237020-52-019626, 예금주 : 윤 용 구
우체국 : 101634-0021930, 예금주 : 윤 용 구